

제6장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 합의기반 조성

제1절 다양한 국민의견 수렴

1. 여론조사 실시 및 다양한 여론수렴 활동
2. 자문기구 운영
3. 민간통일단체활동 지원

제2절 다각적인 통일홍보 전개

1. 첨단매체 활용 즉응 홍보
2. 수요자 지향형 홍보
3. 국제사회 및 해외동포 대상 홍보

제3절 통일교육 강화 및 지원체계 정립

1. 통일교육 지원체계 정립
2. 통일교육 실시
3. 학교통일교육지원
4. 사회통일교육 지원
5. 통일교육자료 개발
6. 사이버통일교육센터 구축·운영

제4절 북한 실태 분석 및 자료 제공

1. 북한실태·주요동향 분석 및 자료 발간
2. 다양한 연구사업·행사 지원
3. 북한 정보 자료 개방 확대

제6장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합의 기반 조성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의 가장 큰 추동력은 국민의 뜻과 의지이며,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되지 않는 대북정책은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견지에서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정부는 국회를 비롯하여 여야 각 당과 사전·사후 협조를 강화하고, 국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왔다.

또한 대북정책 추진 현황과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와 방법을 활용,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자 노력하였다.

제1절 다양한 국민의견 수렴

1. 여론조사 실시 및 다양한 여론 수렴 활동

정부는 국민여론을 대북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폭넓은 여론 수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 중 하나가 연령·직업 등 각계각층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여론조사의 실시이다. 2001년에도 국민의 정부 출범 3주년, 남북정상회담 1주년,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등의 계기와 관련하여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정부는 또한 국민여론조사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의 여론을 수렴,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오고 있다.

국민여론을 대변하고 있는 신문·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의 남북관계

보도내용은 물론 각종 기고문 등을 종합하여 「주간 여론동향」으로 발간, 주요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국내외 학술회의 등에서 발표된 논문이나 토의된 내용, 그리고 다양한 정책관련 자료 등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등 계기시 마다 통일관련 단체 인사, 전문가 및 학자, 각계 여론 주도층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통일고문회의, 정책자문회의, 통일정책평가회의 등 다양한 기구를 활용해 자문을 구하고 있다.

< 2001년도 국민여론조사 실시 결과 >

구분	일자	대 상	주 요 내 용
1차	2.24	일반국민 1,5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정부 출범 3년 대북정책 추진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했다 (76.8%), 잘못했다 (21.6%) ○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남북관계 최대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및 생사확인 (53.0%) ○ 대북 화해협력정책 추진후 전쟁위험 감소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소 (70.0%), 감소되지 않음 (27.9%) ○ 대북 화해협력정책 지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지한다 (83.5%), 지지하지 않는다 (15.5%)
2차	6.19	일반국민 1,5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남북정상회담의 남북관계 개선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여 (85.9%), 기여하지 못함 (12.0%) ○ 금강산 관광사업의 지속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되어야 함(65.5%), 중단되어야 함(30.3%) ○ 향후 중점 정책추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적 긴장완화 및 평화체제 구축 (35.8%) ○ 대북 화해협력정책 지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지한다 (76.7%), 지지하지 않는다 (20.5%)
3차	9.22	일반국민 1,5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차 장관급회담이 남북관계 진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움이 될 것 (64.9%), 도움이 안될 것 (27.7%) ○ 경의선 연결 등 남북경제협력의 실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다 (56.0%), 높지 않다 (39.6%) ○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찬성한다 (60.0%), 반대한다 (38.4%) ○ 대북 화해협력정책 지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지한다 (76.8%), 지지하지 않는다 (19.0%)
4차	12.18	일반국민 1,5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 한해 남북관계에서 거둔 가장 큰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46.0%) ○ 향후 중점 추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 (28.6%) ○ 대북 화해협력정책 지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지한다 (68.2%), 지지하지 않는다 (28.9%)

2. 자문기구 운영

가. 통일고문회의

통일고문회의는 통일문제에 대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국가원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일에 관한 초당적·범국민적 의견을 종합하고, 평화 통일 의식 고취와 효율적인 통일정책 자문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국민의 정부」출범 이후 정부는 「통일고문회의규정」을 개정(1998.11.28)하여 통일고문의 임기를 2년 6개월로 조정하는 등 안정적인 활동을 통해 통일정책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에는 「국민의 정부」 제2기 통일고문회의가 구성(의장 : 조영식)되었으며, 대통령과의 간담회를 통한 정책자문·지역 여론수렴활동 등 통일정책 수행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01년의 활동실적은 고문회의 4회(2.1, 5.8, 10.9, 12.17), 워크숍 1회(6.19), 대통령 간담회 2회(5.8, 12.17), 지역여론수렴활동 1회(11.30~12.1, 제주지역) 등이다.

<통일고문 명단>

(위촉기간 : 2000.11.20~2003.5.19)

성 명	직 책
조영식(의장)	경희학원 학원장
강만길	상지대 총장, 前 민화협 상임의장
강문규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권오기	21세기평화재단 이사장, 前 통일부총리
김 근	연합뉴스 사장, 前 한겨레신문 논설주간
김수환	추기경
김종하	고합그룹 상임고문, 前 대한체육회장
박권상	한국방송공사 사장
박영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13대 국회의원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종화	세계교회협의회 중양위원, 경동교회 당회장
서병식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안무혁	한국발전연구원 이사장, 14대 국회의원
오재식	월드비전 회장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
이기옥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이만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병형	성우회 자문위원, 前 2군사령관
이상훈	재향군인회 회장, 前 국방부장관
이성림	한국예총 회장
이어령	중앙일보 고문, 前 문화부장관

성 명	직 책
이우정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 14대 국회의원
이홍구	서울국제포럼 이사장, 前 국무총리
장 상	이화여대 총장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조완규	한국생물산업협회 회장
최영철	통일번영연구원 회장, 前 국회부의장

나. 통일정책 평가회의

정부는 통일 및 대북문제와 관련된 주요정책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평가를 통해 정책추진의 효율성과 적실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통일정책평가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평가위원은 2001년 말 현재 13명으로 분야별 전문성, 직능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정치·경제·법률·언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고르게 위촉하고 있으며, 매년 3월 새로이 위촉하고 있다.

2001년의 활동실적은 평가회의 3회(2.9, 4.6, 9.28), 워크숍 1회(12.7~8) 등이다. 또한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수시 자문을 통해 대북정책 수행에 기여해 왔다.

<2001년도 통일정책 평가위원 명단>

(위촉기간 : 2001.3.1~2002. 2.28)

성 명	직 책
안병준(위원장)	연세대 명예교수
백종천	세종연구소 소장
백충현	서울대 법대교수
서병철	통일연구원 원장
신인령	이화여대 법과대학 학장
이상만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장공자	충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장청수	한국정책개발원 원장
전인영	서울대 국민윤리학과 교수
조 형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하영선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허남성	국방대학교 안보문제 연구소장
황의각	한국은행 금융통화 위원

다. 정책자문위원회

주요 대북·통일정책의 입안·계획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통일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2001년 말 현재 통일정책, 북한정보, 교류협력, 인도지원, 남북회담, 통일교육 등 6개 분과위 4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7월 위원을 새로이 위촉하고 있다.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명단>

(위촉기간 : 2001.7.1~2002.6.30)

통일정책 분과위 (10명)	북한정보 분과위 (8명)	교류협력 분과위 (8명)	인도지원 분과위 (7명)	남북회담 분과위 (8명)	통일교육 분과위 (7명)
권민웅 (경북대 교수)	강성운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혜원 (코리아헤럴드 논설위원)	김귀옥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상근연구원)	고유환 (동국대 교수)	고정식 (배재대 중국학 교수)
남찬순 (동아일보 논설위원)	고일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백영옥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	김운근 (북한농업연구 센터 부장)	김경홍 (대한매일 논설위원)	오기성 (인천교대 교수)
백학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서주석 (국방연구원 북한군사 연구팀장)	신지호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박창빈 (월드비전 사업본부장)	김용호 (한림대 민족통합연 구소장)	윤영민 (한양대 교수)
이영애 (단국대 교수)	류길재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	신현윤 (연세대 법대교수)	오혜정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 원회 수녀)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장)	이기범 (숙명여대 교수)
장명봉 (국민대 교수)	윤덕민 (외교안보 연구원 교수)	제성호 (중앙대 법학과 교수)	윤영관 (한국국제전략 화해연구소 (ISR) 소장)	송영선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인숙 (세종대 교수)
전득주 (숭실대 통일 정책 대학원장)	전숙희 (교육복지연구 원장)	조동호 (KDI북한경 제연구팀장)	이강렬 (국민일보 편집국 부국장)	이종석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 연구실장)	정진경 (충북대 교수)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	전혜숙 (김일성정치대 여성정치군 관학교 졸)	조명철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연구위원)	최대석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장달중 (서울대 교수)	황대준 (성균관대 교수)
좌승희 (한국경제연구 원장)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지은희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정옥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하용출 (서울대교수)					
함인희 (이화여대 교수)					

3. 민간통일단체활동 지원

남북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다양성과 민주성이 강조되는 시대적 관점에서 볼 때 그 역할은 앞으로 크게 확대되어갈 것이다.

1980년대까지 통일운동단체는 민족통일협의회 등 몇몇 단체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그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전문화·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통일운동단체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이들 단체의 정책제언을 수렴하여 통일정책에 반영해 오고 있다.

특히 2001년 민간통일운동은 6.15~8.15 기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전개되었는데, 가장 큰 특징은 민간단체간 남북공동행사 개최이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남북노동자대회(4.30~5.2, 금강산), 민족통일대토론회(6.14~16, 금강산), 남북농민대회(7.17~19, 금강산), 8.15 민족통일대축전(8.15~21, 평양) 행사 등을 들 수 있다.

국내 민간통일단체들이 자발적 연대를 통해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를 결성하여 6.15, 8.15행사 등 대규모 남북공동 민간행사를 개최한 것은 민간통일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2001년 8.15 남북공동행사에서 일부 인사들이 돌출행동을 함으로써 법적 제재를 받았으나, 이는 남북관계 발전의 과정에서 여과되고 순화되어야 할 과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1년 12월말 현재 통일부 허가 비영리법인 통일운동단체는 총 95개이며, 통일부는 이들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연구·교육·홍보·교류 등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통일부 허가법인 현황>

2001.12.31 현재 총 95개 단체

단 체 명	대표자	단 체 명	대표자
민족통일협의회	한양수	대한민국팔각회	장종수
민족문화통일회	최창순	한민족운동지도자연합회	김형주
평화문제연구소	현경대	한국불교자유총연합회	이무용
민주통일촉진회		한국미래연구학회	신윤표
한민족세계선교원	조준상	한민족통일교육연구소	김금중
통일기념사업회	김동섭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이경호
21세기통일준비운동본부	허태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이돈명
민족통일복음화운동본부	김규병	평화와통일을위한복지기금재단	이수성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고정명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우정
세계한민족평화통일협의회	김재천	민족화합운동연합	주종환
민족통일불교협의회	김태완	세계평화여성연합	정대화
민족통일에스라운동협의회	조동진	통일맞이	이재정
한민족통일촉진협회	권희준	평화통일복지협의회	김태유
한사랑민족통일진흥원	김학옥	평화통일교육성국민중흥회	유재진
21세기통일봉사단	박종근	민족통일연합중앙회	안광양
통일건국민족회	권천문	한국통일교육연구회	김덕창
국민정신중흥회	이명규	범민족화합통일운동본부	박영록
대한기독교자유연맹	박태남	민족통일촉진회	서정일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유종관	북한연구소	김창순
평화연구원	방희	한국발전연구원	안무혁
한우리연구원	신창민	한민족통일연구중앙협의회	정성욱
통일시대연구소	이종률	다물민족연구소	박광순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이장희	우리연합	최민자
한국청년정책연구소	이경훈	통일경제연구협회	김기환
백천통일시대연구원	이성민	한국사회문화연구원	홍사광
한국사회통일연구원	유도진	한겨레통일문화재단	변형윤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박관용	북방문제연구소	김희욱
남북체육연구학회	이종영	21세기남북문화연구원	한태선

단 체 명	대표자	단 체 명	대표자
남북문화교류협회	이배영	민족통일선교협회	신현균
한겨레평화통일협회	장승학	남북코리아미술교류협의회	정주환
남북민간교류협의회	김승균	경실련통일협회	김성훈
남북어린이어깨동무	권근술	남북강원도문화교류재단	강도원
세계평화청년연합	김봉태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신법타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정성현	한민족한마음운동추진본부	김성택
남북소년통일교류회	정경석	남북나눔	김성수
일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이재운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김연준
북한이탈주민후원회	강성모	북한인권시민연합	윤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송현섭	탈북자동지회	홍승경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이재정	좋은벗들	최석호
북한의민주주의와인권실현을위한네트워크	조혁	보통사람들의통일운동시대본부	김경재
겨레하나되기운동연합	송낙환	남북사랑나누기협의회	최승강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강영석	6.25전쟁남북인사가족협의회	이미일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심재식	통일교육협의회	임종혁
미래전략연구원	구해우	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민족연합	홍사덕
평화운동연합	이수성	통일문화연구원	라종억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한명수	남북한전통사회문화연구원	최병보
민족화합통일운동연합	박봉식	민족통일체육연구원	이학래
새천년남북통일운동협의회	주명주		

제2절 다각적인 통일홍보 전개

2000년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국민들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북정책 추진 내용과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정확히 알려 국민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 전개하였다.

우선 대북정책 및 통일 추진과 관련, 홍보 대상자이자 수요자인 국민들이 계층·세대에 따라 그 관심사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는 내용을 발굴하고 홍보방법과 매체활용에 있어서도 다각화를 추구하였다.

1. 첨단 매체 활용 즉응 홍보

정부는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고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홍보가 아니라 국민들과 쌍방향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인터넷, E-mail 등 첨단 매체를 적극 활용하였다.

가. 통일부 홈페이지 「unikorea.go.kr」

1996년 12월 개통된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는 대북정책, 남북관계현안 및 북한동향 등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국·영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관한 포털 사이트로서 기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하여 왔다. 2001년 말 현재까지 5년동안 170여 만명이 이용하였다.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2001년 8월 통일부 홈페이지를 밝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로 바꾸는 동시에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과 메뉴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국민에게 다가서는 열린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통일부 홈페이지의 대북정책 및 통일문제에 대한 자료제공과 국민여론 수렴기능을 크게 강화하였다.

우선 「자유게시판」코너가 신설되어 국민들의 통일문제 등 제반사항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는데 기존의 「통일대화방」(통일문제관련 의견제시 및 문의), 「장관과의 대화」(통일부장관에게 직접 의견제시 및 건의), 「감사관 신문고」(감사 관련 의견 제시)와 함께 국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수록한 「국회 보고자료」코너를 신설, 대북정책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대신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E-mail 자료 요청」 등의 코너도 신설하여 원하는 국민들에게는 개개인 E-Mail로 관련자료를 보내주고 있다.

그리고 북한자료를 손쉽게 볼 수 있는 북한자료센터(<http://unibook.unikorea.go.kr>), 남북회담에 관한 자료를 손쉽게 볼 수 있는 「남북회담자료」(<http://dialogue.unikorea.go.kr>), 남북한의 이산가족문제를 다루는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http://reunion.unikorea.go.kr>), 통일교육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사이버통일교육센터」(<http://www.uniedu.go.kr>) 등을 연계 운영 하고 있다.

또한 1998년부터 개통된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http://unibook.unikorea.go.kr>)는 2001년 한해동안 총 327,774건의 접속건수에 게시판 질의·응답은 2,352건에 이르고 있다.(1998년이래 총 누계는 접속건수 728,491건, 질의·응답 4,888건) 북한정보자료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2000년 12월에는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에 ‘북한영화 소개’와 ‘자료실’을 새로 설치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 홈페이지의 기능 및 내용을 대폭 강화하였다.

1999년 10월에 개통된 남북회담자료 홈페이지 「Dialogue」(<http://dialogue.unikorea.go.kr>)는 남북회담에 관한 각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통일문제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에게 유용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남북회담사료 홈페이지 「Dialogue」는 1970년 이후 2001년말 현재까지 약 30여년 동안 추진되었던 남북정상회담, 남북장관급회담, 남북고위급회담, 남북군사분야 회담, 남북경제분야 회담, 남북적십자회담 등 각종 남북회담에 관한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수록되어있다.

메뉴 구성은 남북회담의 역사를 사진과 함께 볼 수 있는 「남북회담사」, 남북간의 최종 합의서를 모아둔 「남북합의서」, 남북대화 연표, 남북대화, 남북한 통일대화·제의 비교, 통일백서, 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 등 발간 책자와 자료를 정리한 「사료DB」, 보도자료, 해설자료 등을 모아둔 「자료실」 등이다.

그밖에 남북대화에 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높이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열린마당」을 운영하고 있고, 「회담소식」 메뉴를 통하여 남북회담 소식을 빠르게 전달하고 있으며, 자료들에 대한 통합검색 기능이 있어 자료 접근 및 자료 저장이 쉽도록 구성되어 있다.

남북회담사료 홈페이지는 개설 이래 2001년말 현재까지 약 40여만명의 이용자가 접속하였다.

〈통일부 홈페이지 메뉴 구성〉

2001. 12.31 현재

통일부 소개	주요업무현황	통일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말 ○ 조직 및 업무 ○ 통일부 연혁 ○ 통일부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업무계획 ○ 통일정책 ○ 인도적지원 ○ 교류협력 ○ 남북회담 ○ 경수로 ○ 북한이탈주민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국회보고자료 ○ 남북회담
남북관계동향	자료실	통일갤러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일남북관계동향 ○ 일일북한방송 ○ 주간북한동향 ○ 주간국제동향 ○ 월간교류협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부 발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백서 등 ○ 남북합의자료 ○ 신진연구자 논문 ○ 국내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교류협력 등 ○ 북한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사진 ○ 알기쉬운 북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의 언어 등 ○ 한민족의 삶 ○ 한민족의 애창가요 ○ 통일만화마을
민원마당	E-mail자료요청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안내 ○ 행정정보공개 ○ 민원처리공개 ○ Hotl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관과의 대화 등 ○ 질의모음(FAQ) ○ 통일대화방(Q&A) ○ 전자공청회 ○ 자유게시판 ○ 동영상 공모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청자료 전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자료센터 ○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 통일교육센터 ○ 남북회담사료 ○ 검색 ○ 관련사이트

나. 전자공청회

PC 통신이나 인터넷상에서 네티즌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특정 현안문제에 대해 토론을 벌일 수 있는 「전자공청회」가 1998년 이후 총 14차례 개최되었으며, 2001년 한해 동안에는 3차례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총 1,773명이 「21세기 남북이 더불어 사는 길」 등을 주제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자공청회를 통해 인터넷의 주된 이용자층인 신세대들에게 대북정책 및 남북정상회담의 추진 성과를 전달하고, 의견 교환 및 토론을 통해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통일 표어·동영상 등을 공모 하여,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당선작을 전국 철도, 공공기관 전광판, 통일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광범위하게 전파하였다.

<PC통신 및 인터넷 전자공청회 개최 현황>

시 기	행 사 구 분	주 제	의견제시 건 수	내용조회 건 수
2000. 2	PC통신(2000년 1차)	남북실상 바로 알기	138	7,391
2000. 5	PC통신(2000년 2차)	사이버 「남북정상회담」	147	8,751
2000. 9	인터넷(2000년 3차)	남과 북, 제로섬? 플러스 섬?	490	14,326
2000.12	인터넷(2000년 4차)	남북관계, 생각해 봅시다	352	13,058
2001. 2	인터넷(2001년 1차)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정책	217	7,273
2001. 6	인터넷(2001년 2차)	21세기, 남북이 더불어 사는 길	265	11,366
2001.10	인터넷(2001년 3차)	새천년, 남과 북	1,118	17,462

2. 수요자 지향형 홍보

한편, 대북정책 관련 각종 자료도 수요자인 국민의 세대별·계층별 눈높이에 맞춰 제작·배포하였다.

가. 다양한 홍보자료 발간

남북관계 전문가 대상으로는 상세한 정책해설자료집을, 일반국민 대상으로는 시각적·감성적 측면을 최대한 활용한 브로슈어 형식의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하였다.

특히 일반 국민들이 우려하거나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방식으로, 질의 문답자료집 「인도적 대북지원, 사실은 이렇습니다」, 「북한선박의 영해침범, 이렇게 대처했습니다」 등을 발간·배포하였다.

정부는 멀티미디어 시대의 진전과 더불어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시청각자료의 제작·보급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녹음해설 테이프를 제작하였고, 2000년에 이어 2001년에도 대북정책 관련 교육용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하여 교육기관 등에 배포하였다.

<주요 교육홍보자료 발간 현황>

자 료 명	연도	발간부수	형태
대북정책 2주년 실적자료 「대북정책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0	11,500	책 자
대북정책 2주년 실적자료 「For the Future」	”	25,000	브로슈어
「2000 통일백서」	”	6,500	책 자
「2000 통일문제 이해」	”	20,000	책 자
「2000 북한 이해」	”	20,000	책 자
남북정상회담 해설자료 「우리 함께」	”	29,500	책 자
남북정상회담 해설자료 「새날이 밝았다」	”	40,000	브로슈어
「남북공동선언 조항별 해설 및 주요 현안 문제 관련 질의·응답 자료」	”	30,000	책 자
「남북이산가족교류 어떻게 추진되나」	”	30,000	브로슈어
「함께하면 더 좋은 세상」	”	-	웹만화
「새천년 통일문제 새로보기」	”	10,000	책 자
「북한방문 길라잡이」	”	5,000	책 자
「사회통일교육지침서」	”	2,000	책 자
「사회통일교육 표준강의전개안」	”	3,000	책 자
「2001 통일교육기본계획」	”	1,500	책 자
「2001 통일교육기본지침서」	”	29,000	책 자
「새천년 함께 가는 남과 북」	”	1,500	영상자료
「대북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	100,000	책 자
「2000년 남북관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30,000	책 자

자 료 명	연도	발간부수	형태
국민의 정부 출범 3주년 실적자료 「약속과 실천」	2001년	30,000	브로슈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 갑시다」	”	150	영상자료
「따로 한 반세기, 함께 하는 21세기」	”	50,000	책 자
「2001 통일백서」	”	7,000	책 자
「2001 통일문제 이해」	”	12,000	책 자
「2001 북한 이해」	”	12,000	책 자
남북정상회담 1주년 해설자료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	3,000	책 자
남북정상회담 1주년 해설자료 「평화와 협력을 향하여」	”	200,000	책 자
「금강산 관광사업, 새롭게 시작됩니다」	”	10,000	책 자

나. 「통일속보」와 E-mail 자료 발간

2001년에는 남북대화가 일시적으로 소강 국면에 접어드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남북관계와 관련된 현안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시의적절하게 전달하여 국민적 이해와 합의기반 하에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였다.

먼저 남북관계 관련 중요현안이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통일속보」와 E-mail 자료로 발간하였다.

<2001년 통일속보 및 E-mail 자료 발간 현황 >

자 료 명	형 식	시 기
「2000년 남북관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E-mail	1월
대북정책 추진방향 및 중점과제	속 보	2월
독일분단기간중 서독의 對동독 지원내역	E-mail	4월
최근 북한의 체육활성화 동향	E-mail	5월
「인도적 대북지원, 사실은 이렇습니다」	E-mail	5월
남북정상회담 1주년 해설자료	E-mail	6월
「북한선박의 영해침범, 이렇게 대처했습니다」	E-mail	6월
금강산 관광사업 설명자료	E-mail	6월
북한 공장·기업소 상반기 계획 평가	E-mail	7월
「금강산 관광사업 새롭게 시작됩니다」	E-mail	7월
북한의 가공무역법 해설자료	E-mail	7월
8.15 행사 관련 설명자료	E-mail	8월
북한주민의 직업세계	E-mail	9월
5차 남북장관급회담 실천과제	속 보	9월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이해	E-mail	9월
통일과정에서 본 우리의 대북정책	E-mail	10월
6차 남북장관급회담 해설자료	E-mail	11월
최근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추진방향	E-mail	12월

한편, 현안 설명 자료를 보다 신속하게 배포하기 위한 일환으로 E-mail 배포시스템 구축에 주력하였다. 현안 설명 자료를 E-mail을 통해 받기 원하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 2001년 말 현재 교사, 통일문제 전문가 등 약 5만여 명에게 E-mail 자료를 수시 배포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E-mail 배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대북정책 및 통일 관련 현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신속 정확히 알리기 위해서 라디오와 TV 등 방송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였다. 특히 통일·북한 관련 라디오, TV 프로그램 제작진들에게 관련 자료를 수시로 제공함으로써 방송 제작에 도움을 주었다.

<북한·통일관련 프로그램 현황>

2001.12. 현재

방송사	프로그램	방송시간대	시간	담당부서
KBS 사회교육방송	통일열차	매일 00:10	50분	사회교육1부
K-TV	한민족 우리는 하나	매일 14:30	20분	영상제작과
YTN	북한 리포트	화 16:32	30분	통일외교팀
SBS	평양2000 (모닝와이드內)	목 06:35	6분	정치부 (통일외교안보팀)
KBS 1	북한 리포트	목 23:35	30분	통일부
EBS	남북은 하나	토 07:20	30분	사회팀
Arirang TV	Peninsula Scope	토 09:30	30분	제작팀
KBS 1Radio	남과북 하나로	토 17:30	30분	기획특집국
MBC Radio	남북한마당	일 06:05	25분	제작2부
BBS	통일로 하나로	일 07:05	55분	교양제작부
MBC	통일전망대	일 07:10	20분	통일외교부
PBC	삼천리 우리는 하나	일 19:15	45분	라디오국

2001년에도 정부 당국자가 각종 시사 프로그램 및 통일 관련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설명하는 기회를 자주 가졌으며, KBS 사회교육방송을 통해 북한주민 및 중·러지역 동포들에게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노력도 계속해 왔다.

3. 국제사회 및 해외동포 대상 홍보

가. 국제사회에 대한 홍보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 이해와 지지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환경 조성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가운데 화해와 협력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려는 정부의 입장과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데 힘써 왔다.

2001년도에는 영문판 통일백서 「Peace and Cooperation」과 함께 남북정상 회담 1주년 기념 영문 해설자료 「Toward an Era of Peace and Cooperation」을 발간하였고,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성과 및 과제와 주변국의 협조를 담은 팜플렛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과 미국(일본·중국·러시아)」을 해당 외국어로 발간하여 외국의 주요기관 및 여론 지도층 등에 배포하였다.

또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주요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기 위해 1998년 7월 격월간으로 시작한 영문 뉴스레터 「Korean Unification Bulletin」을 1999년부터는 월간으로 발간 회수를 늘렸다. 이와 함께 민간연구기관인 평화문제연구소와 남북평화통일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월간 「통일한국」과 계간 「Korea and World Affairs」를 해외동포와 외국연구기관·여론지도층을 대상으로 배포해 오고 있다. 아울러 남북관계에 영향력을 지닌 주요 국가의 관계인사·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통일정책포럼」을 매년 개최하고 있는 바, 2001년도에는 3월에 베이징에서 한·중 통일정책포럼을, 11월에 모스크바에서 한·러 통일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한편 이들 해외인사들이 한국을 방문할

경우에는 세미나 개최 또는 통일부로 초청하여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설명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민간단체 발간 해외홍보자료 배포 현황 >

2001.12.31 현재

기관명	연 도	간기	자 료 명	부 수
평화문제연구소	1989~현재	월간	통일 한국	매호 1,100
남북평화통일연구소	1981~현재	계간	Korean and World Affairs	매호 2,100

< 국제사회 대상 홍보자료 발간 현황 >

2001.12.31 현재

구 분	연 도	형 태	자 료 명	부 수	비 고
정기 (월간)	1998~ 현재	뉴스레터	Korean Unification Bulletin	매호 2,000	영어
부정기	2001	단행본	Peace and Cooperation	2,500	영어
		팸플릿	Toward an Era of Peace and Cooperation	4,000	"
			Korea's Engagement Policy towards North Korea and its Implications to the U.S.	600	"
			韓國の對北韓包容政策と日本	300	일어
			韓國對北韓包容政策與中國	400	중어
			Политика смягч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отношен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 Россия	200	노어

나. 해외동포에 대한 홍보

560여만 해외동포들은 남북간 화해협력을 촉진하고 거주국 대한반도 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해외동포들이 같은 민족으로서 공동체의식을 고취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해외동포사회의 이해와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다.

우선 15개국 47개 동포 신문사·방송사에 정부의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시로 지원함으로써 우리 대북정책의 의미와 정당성 등을 동포사회에 알리고 있다.

특히, 해외동포 언론사를 대상으로 국내 전문가들이 작성한 통일문제 관련 칼럼을 정기 송부하여 게재토록 함과 아울러 동포단체 주관의 민족문화 행사와 현지 대학·연구소의 한반도문제 관련 세미나 지원을 통하여 우리의 통일문제에 대한 동포사회의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다.

또한, 정부는 1991년부터 매년 「세계한민족통일문제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1993년부터 남북관계 현실에 대한 미주지역 동포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미주지역 통일문제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다. 2001년 5월 24일에는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미·일·중·러 및 독일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와 해외동포 등 2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1차 세계한민족통일문제토론회가 개최되었으며, 10월에는 미국의 LA, 애틀란타, 샌프란시스코 등지에서 제9차 미주지역 통일문제포럼을 개최하였다.

< 세계한민족통일문제토론회 개최 현황 >

2001.12.31 현재

구 분	개최일	장 소	참가인원	대 주 제
제1차	1991.9.13	서 울	15개국 262명	21세기를 향한 한민족공동체의 나아갈 길
제2차	1992.8.18-19	러시아 사할린	11개국 154명	새로운 국제환경 속에서의 한반도
제3차	1993.9.20-23	서 울	17개국 336명	신한국 창조와 조국통일의 과제
제4차	1994.8.5-7	중국 연변	10개국 25명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 전망
제5차	1995.8.16-17	서 울	14개국 650명	통일 · 번영의 한민족시대 전망
제6차	1996.11.21-23	일본 도쿄	13개국 250명	한민족통일을 위한 새로운 이해
제7차	1997.9.5-6	서 울	16개국 300명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안정적 변화 유도
제8차	1998.8.17-19	미국 샌프란시스코	10개국 120명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과 해외동포사회의 역할
제9차	1999.10.1	서 울	6개국 100명	포용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해외동포의 역할과 과제
제10차	2000.6.17	독일 베를린	23개국 140명	독일통일 10년과 한반도 통일
제11차	2001.5.24	서 울	6개국 230명	6 · 15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 변화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하고 적실성 있는 홍보자료를 제작·배포(월간 Korean Unification Bulletin, 통일백서 영문판 등 4종 38,000부)하고, 재외동포 및 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 주변국 한반도 문제 세미나 등을 개최하였다.

제3절 통일교육 강화 및 지원체계 정립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남북한간에 평화공존을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통일교육은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 통일교육은 각급 학교 등에서, 사회통일교육은 공공 교육훈련기관,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는 통일교육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에 대한 지도·지원 등을 하고 있다.

특히, 1999년 8월 통일교육지원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통일교육 심의위원회 설치, 정부의 통일교육 활성화 임무 부여, 학교 및 사회 통일교육 지원 강화 등 통일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부는 평화공존과 남북화해협력시대에 부합하는 통일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화와 화해협력중심의 통일교육내용체계 정립, 정부·민간 통일교육협력체제 구축, 학습자 중심의 열린 통일교육 심화 및 학교·사회 통일교육 지원 강화를 중점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1. 통일교육 지원체계 정립

가. 통일교육 3개년 계획 수립

정부는 통일교육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에 「통일교육 3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여기에서 중기 정책목표로 ‘통일한국의 비전을 향한 범국민적 통일교육체계 구축’으로 설정하고 통일교육지원체계 현황분석, 새로운 통일교육지원체계 준비, 새로운 통일교육지원체계 정비·실행 등 단계별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또한, 통일교육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① 기구개편 및 기능 강화 ② 법·제도적 정비 ③ 전문인력 양성 ④ 예산 확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한편, 이 계획에는 중기 중점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통일부, 민주평통자문회의사무처,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노동부, 여성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의 2002년도 실행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나. 통일교육기본지침서 발간·보급

정부는 통일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올바른 통일의식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통일교육기본지침서를 매년 발간하여 학교 및 사회의 교육현장에 지원하여 왔다. 2001년 12월에는 평화와 화해협력 중심의 통일교육에 중점을 둔 「2002 통일교육기본지침서」를 발간하였다.

이 지침서의 주요 특징은 ① 헌법 제4조 통일조항, 교육기본법, 통일교육지원법 등의 체계에 반영되어 있는 통일교육의 추구이념인 자유민주주의, 민족공동체 의식, 건전한 안보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② 남북 평화공존시대에 부응하는 객관적 북한관을 정립하기 위해 북한 사회의 단편적 모습이 아닌 기본운영원리를 이해하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였으며 ③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실천적 노력을 유도하였다. ④ 통일을 지향함에 있어서 우리 사회내부의 계층별·세대별 폭넓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⑤ 통일교육의 지도원칙에 있어서 민주시민교육, 민족공동체교육, 평화교육, 다문화교육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포괄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2002 통일교육기본지침서」의 구성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2 통일교육기본지침서 구성 및 주요내용>

구 성	주 요 내 용
I. 통일교육의 목표와 과제	1. 통일교육의 목표
	2. 통일교육의 과제
II. 통일교육의 내용체계	1. 통일의 필요성
	2. 북한사회의 모습
	3. 북한의 변화 이해
	4. 통일환경의 변화
	5. 한반도 냉전구조해체 노력
	6. 대북 화해협력정책과 남북관계
	7.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
	8. 통일국가의 실현
	9.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III. 통일교육의 지도원칙	1. 통일교육의 일반적 지도원칙
	2. 통일교육의 대상별 지도원칙

다. 제2기 통일교육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통일교육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999년 8월 설치된 통일교육심의위원회는 2001년 8월 제2기 위원회가 출범되었다.

제2기 통일교육심의위원회는 여성 및 시민단체대표의 참여비율을 높임으로써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 통일교육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차관

급 공무원 및 국회의장 추천 민간전문가 등 25인으로 구성된 제2기 통일교육심의위원회는 2001년 10월과 12월 두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평화와 화해협력 중심의 통일교육을 확산하기 위한 「통일교육 3개년 계획」, 「2002년도 통일교육기본지침서」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그리고 통일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실·국장급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통일교육실무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상정 안건을 사전 검토하기 위하여 9월과 12월 두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통일교육심의위원회 명단>

2002.2.1 현재

성명	소속	비고
정세현	통일부 장관	당연직
최희선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김형기	통일부 차관	
김승규	법무부 차관	
권영효	국방부 차관	
정영식	행정자치부 차관	
윤형규	문화관광부 차관	
김송자	노동부 차관	
현정택	여성부 차관	
김병일	기획예산처 차관	
유정석	국무조정실 총괄조정관	
구본태	한나라당 지구당위원장	국회의장 추천
남주홍	경기대학교 교수	
문정인	연세대학교 교수	
박준영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백용호	중앙대학교 교수	
홍연숙	한양대학교 교수	
곽병선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통일부장관 임명
박도순	고려대학교 사범대학장	
서병철	통일연구원 원장	
심영희	한국여성단체연합 대안사회정책연구소장	
이장희	통일교육협의회 공동의장	
장하진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정세구	서울대학교 교수	
조형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라. 통일교육발전워크숍 지원

정부는 통일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국민들의 통일의식 함양 및 학교·사회통일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교 및 사회 통일교육단체의 통일교육관련 워크숍 개최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총 6차례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2001년도 통일교육발전워크숍 개최 현황>

주관단체	일 자	발 표 주 제
한국방송작가협회	2001. 4. 12	o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방송의 역할 - 북한주민의 가치관 - 통일프로그램의 다양화 방안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01. 5. 28	o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화해협력시대의 민간단체 통일교육의 방향 모색 -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 - 6·15 남북공동선언 1주년의 의의와 실천과제
한국국민윤리학회	2001. 6. 12	o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 모색 - 초등학교 민족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통일교육 - 중학교 민족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통일교육 - 고등학교 민족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통일교육
통일교육협의회	2001. 9. 25	o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통일교육의 방향 모색 - 민족화해시대의 통일교육 방향 -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통일교육 방향
서울 YWCA	2001. 12. 6	o 여성의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 모색 - 반공교육세대의 북한사회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통일교육 정책제안 - 통일사회를 이루기 위한 여성의 역할과 정책제안
통일교육연구원	2001. 12. 11	o 사회통일교육의 현황과 중점방향 모색 - 사회통일교육의 내용 분석과 개선방향 - 사회통일교육의 실시체계 분석과 개선방향

2. 통일교육 실시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전개된 남북관계 진전상황에 발맞추어 남북 화해협력시대에 부합하는 통일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안보를 바탕으로 한 화해협력 지향’이라는 기존 교육방향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화해협력 및 평화공존의 중요성을 강조해 나가고 있다.

남북화해협력시대에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하고 국민들에게 바람직한 통일관과 건전한 안보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사회 각계 인사를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북한 방문 예정자들에 대한 내실있는 방북안내교육을 통하여 방북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한편, 교육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교과과정을 새롭게 편성하고 정보화시대에 알맞는 다양한 교육기법을 활용하는 등 기존 통일교육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있다.

<통일교육 교과 내용>

구 분	교 과 내 용
통일의 당위성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의 의미와 성격 ○ 분단의 배경과 폐해 ○ 평화통일의 필요성
북한사회의 올바른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체제의 특징 : 정치·경제·사회·문화 ○ 북한의 변화 가능성 ○ 북한의 대남전략·대외정책
평화통일환경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질서의 변화 ○ 통일환경의 변화가 주는 함의 ○ 평화정착을 위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포용정책과 국가안보 ○ 남북공동선언의 내용과 남북관계 진전과정 ○ 남북관계의 현황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단국 통일의 교훈 ○ 통일국가의 미래상 ○ 민족공동체 의식의 함양 ○ 민주복지사회의 구현
체험·참여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문점 등 분단현장 시찰 ○ 주제별 토의·과제 연구, 대담토론 등

이와 같은 교과내용에 따라 통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은 크게 통일교육전문인력 양성과 사회 각계인사 통일교육, 방북예정자 교육 및 국내·외 순회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2001년의 경우 통일교육전문인력 양성 3,393명, 사회 각계인사 통일교육 4,621명, 방북예정자 교육 4,760명, 국내·외 순회교육 27,512명 등 총 40,286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가. 통일교육전문인력 양성

통일부는 각급학교, 사회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통일교육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통일교육전문인력은 각급학교 교사, 교장·교감 등 학교통일교육 전문인력, 사회교육기관과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사회통일교육 전문인력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이들에 대한 2001년도 총 교육인원은 3,393명이다.

우선, 학교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유치원 교사, 특수학교 교사, 초·중등 교사, 교육전문직, 교장·교감, 대학교수 등 13개 대상 2,369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있어서는 남북간 평화공존과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데 중점을 두어, 학교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일교육의 내용과 기법 등을 체득케 함으로써 학교통일교육의 저변 확대를 꾀하였다.

사회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사회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통일교육전문위원, 민주평통자문위원, 민방위강사, 향군안보강사, 정훈장교 등 5개 대상 1,024명에 대해 3일 기간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내용은 사회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일반국민들에게 올바른 대북인식과 통일관을 정립시킬 수 있는 전문능력을 배양하고, 남북관계 현실과 통일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국민적 합의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

나. 사회 각계인사 통일교육

우리 국민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형성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직자, 통일관련단체, 학교운영위원, 재외동포지도자 등 우리 사회 각계인사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1년도 총 교육인원은 4,621명이다.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중견관리직 공무원(4-5급), 중견실무직 공무원(6-7급), 읍·면동장, 이탈주민보호담당관, 보안경찰, 통일직무반 등 총 8개 대상 624명에 대하여 3일~2주의 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남북화해협력과 평화공존과정에서 추진되는 정부의 정책추진방향 및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사회 각계인사를 대상으로 초·중등학교 운영위원, 사회단체지도자, 대학생, 통일교육시범학교학생 등 3,129명에 대해 1~3일 기간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내용은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

기타, 재외동포에 대해서도 재일민단 간부반 94명을 대상으로 조국의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통일교육협의회 임원 등 국내 주요인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연찬은 10회에 걸쳐 총 774명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다. 방북예정자 교육

방북예정자 교육은 북한을 방문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인사, 경수로 건설인력, 금강산관광사업 관계자, 남북회담 및 왕래행사 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교육대상을 방북 목적 및 지역 등에 따라 분리하여, 특성화된 교과목을 편성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1년도에는 총 4,760명에 대한 방북예정자 교육이 이루어졌다.

라. 국내·외 순회교육

국내 순회교육은 시간이나 거리 등 제반 여건상 정규 통일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지방의 여론 주도층 인사나 각급 사회교육기관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원의 교수가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강의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국외 순회교육은 재외동포들의 본국의 통일문제 및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통일문제의 국제적 지지기반을 확산시키기 위해 해마다 해외지역을 순회하며 실시하고 있다.

2001년도에는 국내·외 순회교육으로 총 27,512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국내 순회교육은 27,247명을 대상으로 대북정책 등 통일문제와 북한실상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방향에서 실시되었다. 국외 순회교육은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상반기(6.10~6.19)에는 독립국가연합 지역(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하반기(12.5~12.13)에는 대양주 지역(호주, 뉴질랜드)에서 재외동포 2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3. 학교통일교육 지원

가. 초·중등학교 통일교육

정부는 초·중등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1년 2월 15일에 전국 시·도교육청 통일교육담당 장학사 32명으로 구성된 「통일교육담당 장학협의회」를 발족,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01년도 통일교육기본지침을 설명하고 시·도교육청간 통일교육 계획 등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9월 26~27일에는 학교통일교육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학교통일교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 교육청이 지정한 통일교육시범학교 38개교(초등학교 14, 중학교 14, 고등학교 10)를 지원하였다. 이들 시범학교에 대하여는 패널제작용 사진자료와 통일교육용 교재 「열리는 통일 신나는 미래」를 지원하였으며, 시범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에게 하계방학을 이용하여 통일교육 관련 발표회, 판문점 견학 등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일선학교 현장에서 모범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사례를 발굴하여 학교통일교육에 활용해 나가기 위해 「제2회 학교통일교육 우수 사례 공모」를 실시하였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총 39편이 접수되어 학교급별로 통일부장관상 등 총 7편을 시상하였으며, 2002년도에 사례집을 발간·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자라나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분단의 아픔과 평화적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및 지역 북한관 주관으로 「6·15공동선언 1주년 기념 전국학생 통일글짓기 대회」를 실시하였다. 이 대회는 초·중·고 각각 운문 및 산문 분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부문별로 통일부장관상, 교육감상 등을 시상하고 부상을 전달하였다. 아울러 수상작 중 운문은 작품집으로 발간하여 유관기관 및 수상자들에게 전달하였다.

<2001년도 전국 통일교육시범학교 현황>

2001.12.31 현재

관 할	학교명	주 제
서울	신정초	다양한 통일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통일대비 능력함양
	장위중	민족공동체 의식함양과 통일대비교육
	서서울 정보고	남북 동질성회복을 위한 통일주역으로서 해야할 일
	금천고	통일의지 함양과 미래사회의 주역 양성
부산	사직초	남북한 문화 비교 이해 프로그램 구안·적용을 통한 통일의식 함양
	금정여중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통일의식 함양 방안
대구	경서중	북한사회의 바른 이해를 통한 통일대비 능력 신장
인천	구월여중	특활·재량활동 학습프로그램 구안·적용을 통한 통일의지 신장
	제물포고	학급활동을 통한 통일문제에 대한 판단능력의 함양
광주	하남초	시사정보자료 활용을 통한 통일의식 내면화
	무등중	교과외활동을 통한 통일대비능력의 활성화
대전	신흥초	통일관련 교육활동을 통한 통일의지 함양 방안
	유성고	이질적 남북한 문화탐색을 통한 민족동질성교육 방안
울산	옥동초	다양한 통일교육프로그램 구안·적용을 통한 통일대비능력 신장
	명정초	민족의 동질성 회복 프로그램 적용으로 하나된 마음 기르기
	방어진중	다양한 행사참여를 통한 통일대비 능력 함양
	울산여고	북한의 교육사회문화이해를 통한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
경기	파주 갈현초	통일환경변화에 따른 상황중심 체험활동프로그램 구안·적용을 통한 평화통일 실천의지의 강화
강원	와수초	통일교육정립
	용하중	체험활동을 통한 민족화합과 통일에 대한 부정적 시각 극복 방안 연구

관 할	학교명	주 제
충북	안내초	자기주도적 체험활동을 통한 통일의지 함양
	황간중	다양한 행사활동 및 남북한 생활 문화탐색을 통한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
	음성고	학생활동 중심의 통일민족교육을 통한 한민족의 동질성 회복
충남	한산중	제7차 교육과정 통일교육프로그램 개발적용을 통한 민족공동체의식 함양에 관한 연구
전북	부안 영전초	토의학습과 다양한 관련활동을 통한 통일대비능력 신장
	이리북중	가상체험학습 지도를 통한 건전한 통일의식 함양
전남	무안 운남초	북한실상 바로알기를 통한 통일대비 능력 신장
	함평 월야중고	남북한 문화의 동질성 함양을 위한 체험학습 활동의 운영 방안
경북	상주 함창초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통일대비 능력 함양
	김천여중	교과관련 지도 및 계발 활동을 통한 통일의식 함양
	청도 매전중	북한의 바른 이해를 통한 통일의지의 함양
	상주여고	북한생활문화 탐색활동을 통한 민족동질성 함양
경남	거제 고현중	다양한 학습모형과 체험학습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통일 대비능력 배양
	밀양고	통일교과 운영을 통한 통일의식 함양
	금남고	북한이해를 위한 범교과적 교수학습 방법 개선
제주	애월중	토의중심 교과활동을 통한 통일대비 능력 신장
교육인적 자원부	경기 삼죽초	탈북학생들의 사회·학교 조기적응을 돕기 위한 효율적인 지도방안 연구
	경남 계룡초	멀티미디어활용 및 체험학습을 통한 통일대비 능력의 함양

나. 대학 통일교육

정부는 대학사회의 통일문제에 관한 연구 진흥을 위해 대학통일문제 연구소를 중심으로 지원을 계속해 왔다. 2001년도에는 대학통일문제 연구소의 통일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연구활동을 진흥하기 위해 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소속 84개 대학을 5개 분과위원회로 구분하여 연구용역을 발주(6.11~10.31)하였으며, 그 연구결과를 정책 참고자료로 발간하였다.

<분과위원회별 연구용역 개요>

위원회명	연구 책임자	연구 주제
통일정책위원회	박홍순 (선문대)	신4강 질서하의 대북정책 및 한반도 평화
북한사회문화위원회	양병희 (건국대)	통일교육 내용 및 논리개발 - 북한사회를 중심으로
통일교육위원회	임채완 (전남대)	통일교육 내용 및 논리개발 - 통일문제를 중심으로
남북경협위원회	이학수 (대구가톨릭대)	남북경협의 성과, 과제 및 전망
남북교류위원회	김재한 (한림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남북교류방안

<대 학 부 설 통 일 문 제 연 구 소 현 황>

2001.12.31. 현재

대 학	연 구 소 명	대 학	연 구 소 명	대 학	연 구 소 명	대 학	연 구 소 명
강릉대	통일문제	동의대	법정	동아대	사회과학	숭실대	사회과학
강원대	사회과학	명지대	사회과학	신라대	국제지역	제주대	동아세아
건국대	민족통일	목포대	통일문제	아주대	사회과학	조선대	동북아문제
경기대	민족문제	배재대	통일문제	안동대	사회과학	중부대	평화통일
경남대	극동문제	부산대	한국민족문화	안양대	복지행정	중앙대	민족통일
경북대	평화문제	부산외대	국제관계	여수대	통일문제	진주교대	초등교육
경산대	평화전략	상명대	통일문제	연세대	통일	창원대	사회과학
경상대	통일문제	상지대	사회과학	영남대	통일문제	청주대	국제협력
경성대	사회과학	서강대	동아	영산대	지역통상	충남대	통일문제
경원대	사회과학	서경대	통일문제	용인대	인문사회과학	충북대	사회과학
경희대	국제평화	서울대	사회과학	우석대	한국정치	한국의대	사회과학
고려대	평화	서울시립대	법률행정	울산대	사회과학	한남대	사회과학
관동대	동북아평화	서울사이버대	사이버통일연구원	원광대	통일문제	한림대	한림과학
국민대	사회과학	서원대	사회과학	이화여대	한국여성	한서대	인문사회과학
군산대	현대이념	선문대	평화사상	인제대	인문사회과학	한성대	동아시아
단국대	정책과학	성균관대	사회과학	인천대	평화통일	한세대	통일문제
대구대	사회과학	성신여대	사회과학	인천교대	통일교육	한신대	평화
대구효성 가톨릭대	통일문제	세종대	통일문제	인하대	국제관계	한양대	통일정책
대전대	동북아	숙명여대	통일문제	전남대	아태 지역	호남대	인문사회과학
동국대	사회과학연구원	순천대	사회과학	전북대	사회과학	호서대	통일문제
동신대	민족통일	순천향대	사회과학	전주대	사회과학	홍익대	동서문화

한편, 통일문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학문적 관심과 연구분위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1982년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논문 현상공모를 실시해오고 있다.

2001년도 「제20회 대학생통일논문현상공모」에서는 3월부터 8월말까지의 공모기간을 거쳐 논리성, 창의성, 자료인용의 적실성, 유용성 등의 심사 기준을 바탕으로 3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입선작을 선정하였다. 입선작인 최우수상(1), 우수상(2), 장려상(5) 등 총 8편에 대하여 통일부장관 표창 및 장학금을 지급하고, 11월에는 금강산 견학을 실시하였다.

2001년도 논문 입선작은 세부적이고도 참신한 주제로 통일문제 및 통일교육에 접근한 논문이 많은 점이 특징이었으며, 이들 논문은 작품집으로 발간하여 전국 대학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논문의 활용도를 제고하였다.

<제20회 대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 수상 현황>

구분	성명	소속	논문주제
최우수작	김경식	인천기능대 전기계측제어학과 1년	남북화해·협력에서 언론의 이미지적인 역할에 관한 연구
우수작	정승호	고려대 식량자원학과 4년	U-세대를 위한 21세기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김묘정	상명대 무대디자인과 4년	영상세대의 대북한 이미지 분석과 수용미학
가작	김영진	연세대 사회학과 2년	‘한국전쟁 경험세대’와 ‘한국전쟁 비경험세대’간의 인식의 차이와 ‘통일의 주체단위 확립’을 통한 그 극복방안
	이수진	춘천교대 사회교육학 4년	남북 화해·협력시대의 통일교육 발전방안
	고영민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4년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 규범적 시나리오와 전략적 시나리오
	이영림	부산교대 교육학과 4년	교대생의 통일의식에 관한 연구
	이영민	진주교대 도덕과 교육과 4년	도덕과 통일교육을 위한 토론 Rubric 개발

4. 사회통일교육 지원

가. 통일교육협의회

정부는 통일교육에 대한 민간의 관심과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민간이 함께 하는 통일교육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단체들 간의 협의·조정 및 기타 상호간의 협력 증진 도모를 위하여 「통일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2001.5.4)를 받아 설립된 「통일교육협의회」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통일교육협의회」는 한국자유총연맹, 경실련 통일협회 등 85개 단체가 가입하였으며 통일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통일교육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통일에 관한 계몽 및 홍보,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기타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2001년도에는 정관 마련, 분과위원회 구성 등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이사회, 분과위 활동에서 「통일교육협의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였으며 민족화해캠프행사 등 시범사업을 통해 민간통일교육의 경험을 축적하였다.

「통일교육협의회」의 주요 조직은 정관변경 및 예산·결산의 승인 등을 의결하는 총회, 연간 사업계획수립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집행하는 이사회, 이사회 부의안건 작성 및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집행하는 공동의장회의, 청소년·여성·시민·지역별로 구성된 분과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일교육협의회 회원단체 현황>

2001.12.31 현재 (85개 단체)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경남대 사범대 중등교육연수원	경북대 평화문제연구소
경실련통일협회	남북강원도문화교류재단	남북나눔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남북문화교류협회	남북사랑나누기협의회
남북사회문화연구소	남북어린이어깨동무	남북코리아미술교류협의회
다물민족연구소	단국대 정책과학연구소	대한기독교자유연맹
대한민국팔각회	동신대 민족통일연구소	동학민족통일회
목포대 통일문제연구소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민족통일중앙협의회
민족통일추진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부산여성회
부천시민연합	북방문제연구소	북한연구소
사이버대학 넷유니	상명대 통일문제연구소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시민문화단체연석회의	세계평화여성연합	세계평화청년연합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아태평화재단	여성한국사회연구소
열린사회시민연합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좋은 벗들	청소년통일교육문화원
통일건국민족회	통일교육연구원	통일교육연구회
통일교육전문위원협의회	통일기념사업회	통일맞이늦봄문익환목사기념사업
통일민주협의회	통일여성안보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문제연구소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민연대	평화통일복지협의회
한겨레통일문화재단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한국대학원리연구회
한국산업교육연구원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사회교육원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한국이웃사랑회
한국자유총연맹	한국종교인평화회의	한국청년연합회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한국청년회의소	한국청소년지도사협회
한국통일문화진흥회	한국통일여성협의회	한국통일철학회
한민족복지재단	한민족운동지도자연합회	한민족통일교육연구소
한민족통일여성중앙협의회	한민족통일추진협회	한사랑민족통일진흥원
헤인다예문화원	화해평화통일교육전국모임	홍사단통일운동본부
희망의 시민포럼	한국통일교육학회	민주개혁국민연합
하나로교육복지연구원		

나. 통일교육전문위원

1981년부터 통일문제에 관한 지식과 강의능력을 갖춘 지역사회 지도층인사를 통일교육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통일교육전문가로 양성해 왔으며, 이들을 통일문제 및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조성과 국론통합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1987년 1월 1일 「통일교육전문위원관리규정」이 제정되어 1988년 8월 30일 통일교육전문위원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같은 해 9월 1일 국토통일원 산하 사회등록단체로 정식 발족하였다.

2001년 12월말 현재 「통일교육전문위원협의회」는 중앙 및 16개 시도협의회로 조직되어 있으며, 591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전문위원들은 지역사회주민, 민방위대원, 청소년, 기업체 임직원 등 다양한 대상을 상대로 연 626만명에 대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북한통일문제에 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촉진하고 국민적 합의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였다.

아울러, 전문위원들의 교육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는 초청연찬교육 6회, 지역순회 세미나 6회, 통일대화의 광장 1회, 구사회주의권체험연수 1회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자료 15종 40,000부를 제공하였고, 우수활동전문위원에 대하여는 훈·포장 등 정부포상(19명), 통일부장관표창(30명)을 수여함으로써 사기를 진작하였다.

또한 새로운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사회 각계 각층의 지도급 인사 121명을 신규전문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중앙 및 지역대표자 15명을 전원 교체함으로써 전문위원협의회조직의 활성화를 기하였다.

다. 북한관

북한관은 북한·통일관련자료 전시와 남북관련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통일교육체험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관은 현재 부산, 광주, 제주 등 전국 12개 지역에 지방자치단체, 자유총연맹, 민간기업 등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관의 성격과 역할을 감안하여 2001년 8월에 「북한관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설립·운영주체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여 북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사회통일교육지원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전시자료를 보급하고 전시내용을 지도하고 있다.

2001년도에는 일반적인 통일·북한관련 전시자료 제공뿐만 아니라, 학생통일 글짓기대회, 북한 실상 설명회 개최, 기획전시회 물품 제공 등 각종 행사 지원을 통해 북한관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통일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부산·광주·인천 소재 북한관에는 북한관련 특수자료를 소장하고 노동신문 등 북한간행 시사자료를 비치하여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북 한 관 현 황 >

2001.12.31. 현재

지역	위 치	개 관 일	운 영 기 관	전 시 내 역	휴 관 일
부산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236 (자유회관내)	'89.1.30	자유총연맹 부산지회	판넬: 105점 실물: 723점	연중 무휴
인천	인천 남구 송의4동 8-7 (수봉공원 자유회관내)	'94.12.15	자유총연맹 인천지회	판넬: 48점 실물: 650점	월요일
광주	광주 북구 운암동 164-1 (중외공원내)	'89.3.10	통일교육 전문위원 광주협의회	판넬: 89점 실물: 742점	월요일
충북 청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산72-13 (우암어린이회관내)	'93.2.23	청주시 우암 어린이회관	판넬: 60점 실물: 727점	월요일
제주	제주 제주시 일도2동 968-2 (탐라자유회관내)	'93.12.18	자유총연맹 제주지회	판넬: 37점 실물: 911점	연중 무휴
강원 고성	강원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 188 (통일전망대내)	'88.6.15	(주)통일관광	판넬: 42점 실물: 612점	연중 무휴
임진각	경기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482-3 (임진각경내)	'91.1.25	(주)임진각	판넬: 49점 실물: 543점	연중 무휴
강원 철원	강원 철원군 동송읍 장흥4리 20-1 (철의삼각전적관내)	'90.12.15	철원군청	판넬: 44점 실물: 606점	화요일
강원 양구	강원 양구군 해안면 현2리 (편치불지구)	'96.8.14	양구군청	판넬: 55점 실물: 804점	화요일
오두산	경기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88 (통일전망대내)	'92.9.8	(주)동화진흥	판넬: 50점 실물: 1,197점	연중 무휴
경남 창원	경남 창원시 용지동 485번지 (자유회관내)	'98.4.29	자유총연맹 경남지회	판넬: 133점 실물: 687점	월요일
대전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3-1 (대전엑스포 과학공원내)	2001.8.11	대전엑스포 과학공원 (지방공사)	판넬 : 50점 실물: 200점	연중무휴

5. 통일교육자료 개발

2001년에는 통일교육 기본교재로 활용되고 있는 「통일문제 이해」, 「북한 이해」를 개편 발간하였다. 이번 교재는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변화한 상황을 반영하여 북한·통일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001년 6월 15일에는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하여 「만남, 그 소중한 시작」을 발간하였다. 이 책자는 「6.15남북공동선언」의 의의를 되새기고 통일을 우리 모두의 문제로 함께 생각해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생활 속의 다양한 주제들을 통일문제와 연결시켜 수록하고 있다.

또한 2001년 12월에는 「통일문답」을 발간·배포하였다. 「통일문답」은 사회각계인사 및 통일교육전문인력 등 교육생들의 질문내용에 대한 체계적 분석작업을 통해 중요한 질문들을 유형화하고 이에 대한 알기 쉽고 논리적인 설명으로 답변을 구성하였다. 총 98개의 문답이 실려 있으며 보다 자세한 해설이 필요한 10개 항목에 대해서는 돋보기란을 통해 별도의 해설을 부가함으로써 독자들의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였다. 이번 「통일문답」의 특징은 기본교재와 그 편제를 맞추어 독자들이 기본교재와 보완적으로 활용하면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점이다.

한편, 통일교육에 대한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체계적인 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해 나가기 위해 통일교육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간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는 앞으로 관계전문가의 글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통일교육에 관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관심과 내용을 담아내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01년도에는 「통일교육 교수법과 그 실제」를 발간하였다. 이 책자는 통일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활용가능한 통일교육 교수법의 모델과 사례를 수록하고 있으며, 교재의 주요 내용과 동영상 등을 담은 CD자료를 부록으로 함께 제공함으로써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6. 사이버통일교육센터 구축·운영

2000년 10월 13일에 개설한 「사이버통일교육센터(<http://www.uniedu.go.kr>)」는 수요자 지향 콘텐츠 개발과 양질의 통일교육정보 제공에 주력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학교 통일교육 담당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사이버통일교육센터」이용도 증가하여 연간 총 방문건수가 61만 5759건(월평균 5만건 상회)에 달하는 등 대국민 통일교육포털 사이트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통일부는 통일교육 내용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에 대응하고, 시·공간적 제약을 벗어난 원격교육을 통해 통일교육 저변확대를 꾀하고자 사이버통일교육센터의 전면 개편 작업을 추진중이며, 2002년 2월 1일부터는 새롭게 개편된 내용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새로 개편되는 홈페이지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 편리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웹서비스 기능을 보다 향상시켜 통일교육관련 전문사이트로 발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둘째, 온-오프라인 통일교육의 연계를 위해 온라인 통일교육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 WBT(Web Based Training)방식을 적용한 온라인 통일강좌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온라인 통일강좌는 정규 통일교육과정으로서의 정규강좌와 일반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는 열린강좌의 이원적 체계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

셋째, 일선학교 교사와 학생들에 대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통일학교」라는 메뉴를 설정, 서비스기능을 강화하였다.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통일·북한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선 교사들이 현장에서 교수학습 자료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게재하고 있다.

넷째, 일선 통일교육현장에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는 단순 텍스트 위주 서비스를 지양하고 멀티미디어 콘텐츠로 개발, 제공

함으로써 통일교육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통일교육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도록 하거나 건전한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통일교육 커뮤니티(Community)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이버통일교육센터 주요메뉴>

메인페이지	통일교육원	온라인통일강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소식 ○ 공지사항 ○ 관련 정보 검색 ○ 통일북한뉴스 ○ 통일이의 북한 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말씀 ○ 교육원 소개 ○ 교육계획 ○ 통일전망대 ○ 찾아오시는 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좌소개 ○ 열린강좌 ○ 정규강좌 ○ 강좌자료실
통일학교	자료실	참여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만화마을 ○ 통일교실 ○ 학교 자료 마당 ○ 북한의 학생 ○ 가상 북한 여행 ○ 북한의 명절 ○ 학교토론방 ○ 통일게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교육프로그램 ○ 도서자료 ○ 일반자료 ○ 대학통일교육자료 ○ 동영상 모음 ○ 방북 길라잡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어보세요 ○ 자유토론 ○ 정보자료교환 ○ 건의사항

제4절 북한 실태 분석 및 자료 제공

1. 북한실태 · 주요동향 분석 및 자료 발간

가. 북한실태 · 주요동향 분석

정부는 최근 북한 실태와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북한의 정책 변화 추이 등을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내외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의견 교환 등을 통해, 적시성 있고 내실 있는 분석을 함으로써 대북정책 추진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 및 일반인들에게 제공, 북한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2001년도 주요 분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2001년 북한관련 주요 분석 현황 〉

자 료 명	발행시기	비 고
2001년도 북한 신년공동사설 분석	1.1	
북한의 「신사고」론 분석	1.15	인쇄물 배포
김일성대, 일부 학부를 단과대학으로 확대개편	2.2	
김정일 59회생일 경축중앙보고대회 분석	2.16	
북한의 공장, 기업소 기술개선 동향	2.23	
북한의 「종자론」 캠페인 분석	3.9	인쇄물 배포
북한의 초청·방문 외교(1/4분기) 동향	3.3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4차회의 결과	4.5	
김일성 89회 생일행사 동향	4.13	
최근 북한의 정보기술(IT)산업 육성 동향	5.25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변화	6.1	인쇄물 배포
최근 북한의 부문별 기술개선사업 동향	6.8	
북한지역 강수현황(6.17~19 기간 중)	6.20	
2001년 상반기 북한의 주요인물동향 분석	6.29	
공장기업소 「상반년계획」 수행실적 평가	7.6	
2001년 상반기 북한의 무역실적 추정	7.27	
북·러 합작탄광에서 코크스탄 반입	7.27	
북한의 철도망 현황	7.27	
북한의 「갑문법」 분석	8.9	
라남의 봉화 제기 이후 북한 동향	12.14	
2001년도 북한의 물가동향 조사 결과	12.14	
2001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와 전망	12.21	
2001년도 북한정세 평가 및 2002년도 전망	12.28	

나. 자료 발간

정부는 북한의 주요 동향과 정책변화 추이에 대한 수시 또는 정기 자료를 발간, 제공하고 있다.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외교·대남 등 제반 분야별 동향을 1주일 단위로 정리·분석한 「주간북한동향」은 북한의 가장 최근 동향을 쉽게 알 수 있는 자료이다.

1991년부터 발간하기 시작한 「주간북한동향」은 2001년 한해 동안 53차례(520호~572호) 발간되었으며, 통일부 홈페이지 및 우편을 통해 통일관련 연구기관, 북한 및 통일문제 연구학자, 전문가, 관심있는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북한의 당·정·군 등 기관·단체들의 조직 및 주요 인물들의 현황들을 종합 정리한 「북한 기관·단체별 인명집」은 1년 단위로 발간하고 있다. 2001년에도 600부를 발간하여 부내와 관계기관 및 유관단체에 제공함으로써 북한문제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북한의 연간 일정별 주요행사 및 공휴일, 1948년 이후 북한의 주요 대남제의 등을 수록한 「북한 주요행사예정표」와 북한의 당, 행정기관, 입법 및 사법기관, 단체의 조직들을 망라하여 도표화한 「북한권력기구도표」도 발간·제공하였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2001년도에는 「북한주민의 직업세계」를 발간·배포하였다. 이 책은 북한주민들의 각 분야별 직업을 체계적으로 분류·소개한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내 직업의 전반적인 특징, 직업분류체계, 직업결정과정, 노동조건, 휴가·연금 등 복지제도와 함께 50여종의 직업을 중심으로 직업별 인력양성·선발·배치과정, 승진 및 대우 등 직업생활상을 담았다.

또한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경제의 각 분야별 변화상을 진단하기

위해 「2001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를 발간하였다. 여기에는 2001년도 북한의 경제시책 방향과 재정, 건설, 농림수산업, 광·공업부문, 수송·통신부문, 과학기술 부문, 대외경제 등 부문별 동향과 전망, 그리고 2001년 북한 경제 일지가 정리되어 있다.

2. 다양한 연구사업·행사 지원

가. 신진연구자 연구 지원

정부는 북한 및 통일문제에 관심이 있는 신진연구자들에게 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대북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매년 신진연구자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신진연구자 연구 지원은 원칙적으로 40세 이하의 박사학위자 또는 박사학위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공모 방식을 통해 연간 약 20명 내외의 연구자를 선정,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연구 주제는 특별히 정하지 않고 북한 및 통일문제와 관련된 전 분야의 주제를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학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2001년도 정부 지원을 받은 신진연구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 2001년 신진연구자 지원 현황 〉

〈통일정책 분야 : 4건〉

주 제 명	연구자	소속 및 직위(출신학교 · 학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국내 통일논의의 사회적 가치합의에 관한 연구	김진향	경북대 강사 (경북대 정치학박사)
남북한 화해시대 주한미군의 역할과 한계	노병렬	단국대 강사 (미국 템플대학 정치학 박사)
대북포용정책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박재민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원 (미국 UCLA대학 정치학 박사)
북한 통일방안 변천에 관한 연구 :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방안의 기원	이완범	정신문화연구원 조교수 (연세대 정치학 박사)

〈통일교육 분야 : 5건〉

주 제 명	연구자	소속 및 직위(출신학교 · 학위)
초등학교 통일교육 교수모듈 개발	김영하	대구교대 강사 (경북대 정치학 박사)
우리나라 대학의 통일교육과 대학생의 통일의식 변화 : 대학통일교육에 대한 정책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	김주찬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교수 (미국 조지워싱턴 정치학 박사)
남북 청소년 이질감 해소를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이창식	한서대 부교수 (필리핀대학 사회교육학 박사)
정보통신기술(ICT)활용을 통한 학교통일교육 극대화 방안	최승규	부산대 강사 (부산대 교육학 박사)
초등학교 재량활동을 위한 구성주의적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추병완	춘천교대 조교수 (미국 조지아대학 교육학 박사)

<북한실태(정치) 분야 : 5건>

주 제 명	연구자	소속 및 직위(출신학교·학위)
북한의 경제정책 결정과정 변화에 관한 연구 : ‘내각책임제·내각중심제’와 당정 분리를 중심으로	김갑식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서울대 정치학 박사)
북한의 선군정치와 체제 군사화에 관한 연구	김용현	동국대 강사 (동국대 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북한의 개혁과 개방 측정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박선원	연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원 (영국 바릭대학 정치학 박사)
북한의 일본에 대한 ‘전략적 이해변화’ 분석: 동북아 동맹체제 변화의 맥락에서 본 일·북관계	박정진	고려대 아세아연구소 연구원 (동국대 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와 군사체제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군사체제의 사회경제적 성립배경과 발전기능, 그 가능성과 한계를 중심	이태섭	인제대 전임강사 (서울대 정치학 박사)

<북한실태(경제) 분야 : 5건>

주 제 명	연구자	소속 및 직위(출신학교·학위)
민간부문의 성공적인 남북 IT교류를 위한 정부의 역할모형 연구	고영삼	부산발전연구원 전문위원 (부산대 정보사회학 박사)
북한의 경제체제 전환에 대한 CGE Model 분석 : 점진적 이행전략의 경제정책과 정책효과 분석	이영훈	고려대 강사 (고려대 경제학 박사)
남북한 정보통신 협력의 현황 및 향후 과제에 관한 연구	유승훈	호서대 전임강사 (서울대 경제학 박사)
시범적 통일로써의 통일특구에 대한 연구	조진철	미국 포틀랜드대학 방문교수 (미국 포틀랜드대학 도시·지역 계획학 박사)
북한의 2000년대 경제개발전략에 관한 연구	양문수	LG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일본 동경대학 경제학 박사)

<북한실태(사회) 분야 : 5건>

주 제 명	연구자	소속 및 직위(출신학교·학위)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북한의 인식 및 대응 연구	김수암	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서울대 정치학 박사)
시장주도형 상해모델과 국가주도형 심천 모델의 북한 적용가능성 연구	박병광	단국대 강사 (중국 상해복단대학 정치학 박사)
북한의 '사회 법률직업'에 관한 연구 : 변호사와 무역중재원을 사례로 하여	이동진	정신문화연구원 초빙연구원 (서울대 사회학 박사)
북한의 언어공학 현황과 발전 전망에 대한 연구	이봉원	고려대 언어정보연구원 연구원 (고려대 국어학 박사과정 수료)
남북교류상의 출판·영상·음반물 저작권에 관한 협력방안	조수선	국가안보정책연구소 연구원 (미국 앨러배마대학 매스커뮤 니케이션 박사)

신진연구자 연구 지원은 1989년부터 시작하여 2001년말 현재 360명의 전문가를 배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은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북한 및 통일문제를 연구하면서 2001년에는 자체 연구 모임인 「서울평양학회」를 결성하였다.

정부에서는 이들 신진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논문집 형태로 발간, 유관기관과 대학 및 연구소에 배포하고 있다.

나. 전문가 의견 수렴 및 행사 지원

정부는 2001년도 북한정세 평가 및 2002년도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2001년 12월 「북한정세평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또한 6월에는 「금강산 관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선상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또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해외 주요 인사들과의 의견 교환 및 회의 등도 매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북한문제 및 통일과 관련하여 대학과 민간단체 등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3. 북한 정보 자료 개방 확대

정부는 북한실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북한정보자료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서울 광화문우체국빌딩 6층 소재)에서는 김일성저작집, 노동신문 등 북한 원전을 수집하여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다. 또한 북한방송의 주요 내용을 매일 통일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북한영화를 지속적으로 상영하며, 북한실상설명회를 개최하여 왔다. 또한, 단계적으로 북한자료를 재분류하여 이념성이 없는 자료를 중심으로 공개를 확대하였으며, 북한원전의 데이터베이스(D/B)화를 추진하고 있다.

1990년 3월부터 「북한자료센터」에서 매달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는 북한영화 상영은 1993년부터는 부산, 광주 등 지방으로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대학 및 일반단체·기관이 별도의 상영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이에 부응하여 수시 상영도 하고 있다. 2000년과 2001년에는 인천 등 5개 지방도시 소재 북한관에 각 84편의 북한영화를 공급하여 지역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2001년 한해 동안 북한영화는 총 737회 상영되어 127,213명이 관람하였고 1990년 이후 누적 총계는 1,857회 266,891명에 이른다.

이와 함께 북한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고자 1989년부터 관련단체 회원과 대학생, 통일 및 북한문제 전문가와 북한이탈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북한실상설명회를 개최하여 북한정세 및 북한주민생활상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기회를 갖고 있다. 2001년 한해 동안 설명회는 28회 열렸으며 총 1,886명이 참가하였다. 1989년 이후 2001년 12월말까지 총 265회가 개최되었고 18,298명이 참석하였다.

한편, 정부는 북한자료 공개확대 방침에 따라 1999년부터 단계적으로 북한자료 중 비이념성 자료를 선별하여 이를 일반자료로 재분류, 공개하고 있다.

그 1단계로 1999년 3월에 북한 정기간행물 151종 2,694건을 재분류하여 이중 61종 576건을 일반자료로 일반에 공개하고, 2단계로 1999년 12월에 북한간행 단행본 4,249권을 공개하였으며, 3단계로는 북한 영화 등 영상자료의 공개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북한의 주요 원문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이용자가 원하는 곳에서 해당 자료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2001년에는 북한원전 241권 100,760페이지를 데이터베이스화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북한자료공개확대 방침에 부응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998년부터 관계기관의 요청시 북한반입 및 공개자료를 심의해 오고 있으며, 도서, 그림, 우표, 음반 등 북한 반입자료를 2001년 한해동안 42회 3,307건, 1998년 이후 2001년 12월말까지는 총 147회 10,149건을 심의하여 반입이 되도록 하였다.

한편, 정부는 북한방송이 북한실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넓히고 북한 바로 알기를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이의 단계적 개방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북한은 1999년 7월 2일부터 태국의 ‘타이콤’ 위성을 이용하여 「조선중앙TV」 위성방송을 시험방송하고, 같은 해 10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위성방송을 시작하였다. 이에 정부는 1999년 10월 22일 전향적인 입장에서 북한TV 위성방송에 대한 일반시청을 허용하였다. 각 라디오·TV 방송사가 북한위성방송을 직접 수신하여 활용하도록 허용하였으며, 일반국민들도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북한자료센터, 통일교육원)에서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의 북한TV 위성방송 시청 허용조치는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이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숙되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방송내용에도 변화가 있었다. 북한은 라디오와 TV의 대남 비방 프로를 개편하여 종전의 대남 비방프로를 축소하고 사실위주의 보도를 하고 있다. 우리의 라디오와 TV가 북한의 보도매체를 인용하여 북한관련 소식을 곧바로 소개하는 것과 같이 북한의 보도매체도 우리의 언론을 인용, 우리 사회의 일부 소식을 비교적 신속하게 보도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남북간에 방송교류가 진행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의 북한관련 방송 프로그램 내용이 질적·양적으로 풍부해진 것도 이러한 남북관계 발전에 기인한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북한정보자료에 대한 접근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가운데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의 방송개방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꾸준히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